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7. 22.

발 의 자 : 김정호 · 정춘숙 · 김윤덕  
허종식 · 박상혁 · 어기구  
김병욱 · 임종성 · 위성곤  
신현영 · 신정훈 · 서동용  
윤후덕 · 윤준병 의원  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를 위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.

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공급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세제혜택을 연장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지원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음.

이에,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(안 제85조의6제1항 및 2항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각각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재활법」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,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	
③ ~ ⑧ (생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